

양모의 복합화

보다 다양한 패션을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섬유업계에서는 섬유 그 자체를 개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양모 섬유의 개질이다. 양모 자체에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여 보다 새롭고 훌륭한 양모섬유를 만드는 다양한 가공이 있다. 수지가공 등에 의해 양모 스케일(섬유의 표피에 붙어있는 비늘)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신장 완화처리에 의하여 양모에 새로운 크림프를 부여하고, 산화 또는 효소처리에 의하여 양모에 새로운 크림프를 부여하거나 스케일을 제거하는 등의 가공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섬유의 복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화학섬유 및 천연섬유인 면, 마 및 견 섬유 등을 혼방하여 각각의 섬유가 가지는 장점을 살려 새로운 감각의 실, 직물 및 의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의 의생활이 보다 풍요롭게 되어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이 좋은 양모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마크 표시가 국제적인 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울마크는 신모가 99.7% 이상, 울브랜드 마크는 신모가 55~95%인 상품으로, 소재검사와 제품검사에 합격된 상품이다. 대표적인 모직물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모직물

서지	능직물의 하나(학생복, 슬랙스, 스커트 등)
개버딘	급한 각도의 능선이 있는 능직물(코트, 스포츠웨어 등)
트로피칼	세번수의 소모사에 의한 약간 성긴 밀도의 평직물(여름용 신사, 여성복 등)
폴라	강연사를 사용한 밀도가 성긴 평직물(수트 등)
울조젯	연사를 가하여 표면에 섬세한 까칠까칠한 감을 가진 직물(예복 등)
도스킨	가늘고 기모한 두터운 직물(모닝 등의 예복)
모슬린	얇은 메리노종의 직물(여성, 아동용 프린트 복지)
버레디어	능직의 하나인 무직(예복 등)

헤링본	삼능(재킷 등)
삭스킨	상어가죽과 같은 표면을 가진 능직물(신사복 등)
버드아이	마름형 또는 방형의 능조직 또는 평직물(신사복, 수트)
커지	능직물의 하나(유니폼 등)
아문젠	이지직물(신사, 여성복 등)
프랑스	급한 각도의 약간 넓은 능선의 직물(스포츠웨어 등)
부처	태사로 거칠게 짠 직물(신사복, 수트 등)
트워드	능직, 평직 등의 매끈한 직물(신사, 여성 재킷 등)
색스니	유연한 태의 모직물(오버코트 등)